



무주 안성초 6학년 노가바 팀 화면 캡처

통이된 책장에 꽃혀있는 하나의 사전

2022년
7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이미영 / 발행일 2022년 7월 11일 / 54984 /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6(3층) / ☎ 063) 905-0218, 010-2050-0650 (fax 227-0650)

부동심(不動心)의 덕목을 배우며...



원장 남 상 팔

안녕하십니까?

폭염에 우리 회원님들 건강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문화원에게 6월은 늘 특별한 달로 다가옵니다. 6월은 동족상잔의 아픔도 있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분단 극복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도 있는 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2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통일 노가바에 초등 18개 팀, 중등이 6개 팀이 참여하였고,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에는 초등 297명, 중등 8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임피중학교(교장 서진용)에서는 평화통일동아리 ‘피스 브리지’가 통일 노가바에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지난해 논어에 이어 올해는 맹자 고전학습 동아리 강의를 문채병 이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서는 지도자를 새로 뽑았습니다. 맹자 강의를 통해 지도자의 필수 덕목인 ‘부동심(不動心)’을 배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손추는 맹자에게 “선생님은 높은 지위를 얻어 패업이나 왕업을 이루게 된다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책임이 막중한 지도자 위치에서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의문을 품고 헛갈리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겠냐는 물음이다. 이에 맹자는 나이 사십에 이미 부동심(不動心)했다고 자처합니다. 다시 “부동심에는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부동심은 말을 알아차리는 지언(知言)과 기(氣)를 기르는 공부인 호연지기(浩然之氣)로 갖추어진다고 제시합니다. 지언(知言) 공부가 되고 나서야 사악한 말에 현혹되지 않으며 자신의 사상과 신념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양기(養) 공부로 호연지기한 도덕적 용기가 갖추어져야 위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덕을 세우고 공적을 이루는 책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면 생명 속의 뛰어난 재기(才氣)와 찬란함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며, 민주 시민으로서 공부해 할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매달 소중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늘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글 심는 순서

표지 - 무주 안성초 6학년 노가바 팀 화면 캡처

02 인사말- 부동심(不動心)의 덕목을 배우며...

03 소식, 하나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초청 강연

소식, 둘 - ‘고전의 향기’ 동아리 매주 『맹자』 강독회 열어

04 소식, 셋 - 제2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온라인 개최

소식, 넷 - 이광철 전 국회의원(본원 고문),

40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무죄

05 제2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온라인 노가바 대회 수상자

06 통일노래가사바꾸기 영상 캡처

07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

08 답사동아리 <고대로 가야해!> 전북지역 곳곳 답사

10 [책 이야기] 시대의 경계에 서서 아이유가 불러주는 ‘개여울’을 듣고 있습니다

11 [연대사업 / 회원 동정]

12 [고전의 향기] 지도자의 필수 덕목 不動心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초청 강연 7월 교육이야기마당 '시대의 경계에서 일인칭으로 말 걸기'



본원은 김진경 의장(국가교육회의)을 모시고 초청 강연과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7월 6일(수) 오후 6시 30분, 본원 교육실. 강연은 익산, 순창, 부안 등 전북 각지에서 온 50여 명의 회원과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교육의 방향과 교육 단체 활동가들에게 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우리 시대 교육 지성 이시다.

선생은 최근 출간한 『시대의 경계에서 일인칭으로 말하기』 책을 들고 오셔서 지난 30여 년의 한국 교육계의 흐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교육은 산업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역교육이 이루어질 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교육대전환은 아이들의 삶의 현장인 지역을 기반으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려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교육의 주체로 들어와야 한다.”, “모두 10만여 명이 참여하여 만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 이상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학교, 지역사회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강연은 바쁘신 와중에도 김진경 의장께서 전북 교사들과 교육운동 후배들이 보고 싶다고 직접 전화를 주셔서 모시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고전의 향기' 동아리 매주 『맹자』 강독회 열어

본원 '고전의 향기' 동아리는 지난 4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맹자 강독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논어』 강독회에 이어서 올해 『맹자』 강독회도 문채병 선생님(본원 이사)께서 명쾌한 강의로 진행해주고 계신다. 13명의 참가 회원들 중에는 한문을 전공하는 학생도 참여하고 있어서 흐뭇하다. 한 참가자는 매주 고전의 향기에 흠뻑 빠져 학습하는 재미도 크지만, 회원 상호간 소통과 교류를 하는 즐거움도 크다고 말한다. 맹자 강독회는 올해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본원 교육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2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온라인 개최

—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 —

우리 문화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제2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을 개최하였다. 행사 부문으로는 ‘(온라인)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와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2020년부터 세 번째 온라인으로 진행한 통일노가바대회는 초등 18팀 70명, 중등 6팀 23명 등 총 24팀, 93명이 참가하였다.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 부문은 특히 뜨거운 호응을 보여 초등 297명, 중등 86명 등 총 17개교 383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세지만 참가 학생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평화와 통일은 경쟁보다 협력과 연대 속에서 피어나는 가치이므로, 참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업 취지에 따라 상 이름만 달리하였을 뿐 순위를 따로 매기지 않았다. 노가바 참가팀 모두에게 민족통일상 등 상장과 상품을, 편지쓰기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을 수여하였다.

(관련 소식 5~7쪽 참조)



▲ 노가바 심사모습

이광철 전 국회의원(본원 고문), 40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무죄

우리 문화원 이광철 고문님(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은 1982년 12월 11일, 국가보안법 북한찬양고무 및 동조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1983년 5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해 11월, 형이 확정돼 1년 4개월 정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공안당국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고자 하는 청년들의 학습모임을 '북한 찬양'이라 매도했고, 청년 이광철은 본안대 지하실로 끌려가 폭행과 고문을 당해야 했다.

이광철 고문님은 2020년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전주지법 재심재판부는 40여년 지난 이번 7월 7일, 국가 권력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 기쁘면서도 40년 세월 고단하셨을 삶을 생각하니 숙연해진다.



▲ KBS 뉴스화면 캡처

제2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온라인 노가바 대회 수상자

‘평화’와 ‘통일’은 경쟁보다는 ‘협력’과 ‘연대’ 속에서 피어나는 가치이기 때문에 참여 자체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대회 취지에 따라 따로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상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승자입니다.

(참가 학교 이름 가나다순으로 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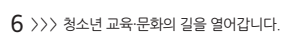
초등 부문

학교명	참 가 자	수상 내역
안성초등학교	강현우 고은희 김강한 김다정 김대현 김민준 김예은 김준영 박한결 박효은 엄수아 유소윤 이은혁 이현민 장대한 최하늘 황마이 황부영 황서영 황승민 (6년)	민족통일상
전주기린초등학교	송도희 윤주연 정유미 (4년)	민족통일상
전주기린초등학교	김가현 김지우 이송은 하지윤 (4년)	민족평화상
전주기린초등학교	김채민 백연우 이태훈 전소익 (4년)	민족평화상
전주기린초등학교	강체린 김현경 김혜윤 장수인 (4년)	민족화해상
전주기린초등학교	노학재 박규담 박준우 (4년)	민족화해상
전주기린초등학교	김태경 박태양 이현수 (4년)	민족협력상
전주기린초등학교	이민형 허진훈 (4년)	민족행복상
전주대정초등학교	김민서 김예은 김이수 한은채 (4년)	민족통일상
전주대정초등학교	김가윤 심서연 유수인 장인서 (4년)	민족협력상
전주대정초등학교	김리환 정유찬 (4년)	민족행복상
전주동신초등학교	하주희 한시은 (6년)	민족통일상
전주동신초등학교	양민서 정다희 정리아 (6년)	민족평화상
전주동신초등학교	조예진 차은홍 (6년)	민족화해상
전주효림초등학교	백건우 이지훈 장재인 (4년)	민족평화상
전주효림초등학교	고영권 권범준 김태형 (4년)	민족화해상
전주효림초등학교	강채원 형가윤 (4년)	민족협력상
전주효림초등학교	장은서 전보경 (4년)	민족행복상

중등 부문

학교명	참 가 자	수상 내역
계화중학교	김민철 이수진 임사랑 (3년) 양소진 임한별 (1년)	민족통일상
계화중학교	김영현 김정빈 김효진 (2년)	민족평화상
이리공업고등학교	김민호 안재섭 엄주환 이태현 (2년)	민족협력상
임피중학교	강건 박원빈 박준우 (2년)	민족화해상
임피중학교	곽남권 임근영 전승진 최예원 하지후 황하윤 (1년)	민족행복상
전주만성중학교	김현서 엄세민 (1년)	민족통일상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 영상 캡처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기념 **북녘 동포에게 편지쓰기**

무주 안성초등학교 4학년 반 이름 (장한별)

우리는 하나

전주유치원 5학년 2008.10

[illegible]

답사동아리 《고대로 가야해!》 전북지역 곳곳 답사

—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전북 천년’이 가슴으로 살아서 들어온다. —

【편집자 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 답사동아리 ‘고대로 가야해!’가 신설되어 매달 답사를 떠난다. 4월부터 7월까지 벌써 네 차례 답사를 했다. 정말 가슴 뛰는 답사다. 매번 우리 고장 천년을 새롭게 만나고 있다. 회원들은 한 걸 같이 답사가 기다려진다고 말한다. 답사를 짧게 소개한다. 원가 궁금하고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시라고 여기에는 맛보기만 내놓는다. 40여 년간 가야와 후백제 연구에 매진해 오신 고고학자 곽장근 교수님(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이 재능기부로 답사 가이드를 해주시니 그저 황송할 뿐이다. 동참에 주저마시라.

[4월 답사] 4월 16일, 마한은 해양세력이다.

마한의 숨결을 찾아 군산에서 김제, 부안을 거쳐 고창까지 둘러보았다. 답사 경로는 [군산 미룡동 마한 고분군(군산대) - 패총 - 나포 공주산 - 부안 계화 가야포 - 고창 아산면 봉덕리 고분군]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대 캠퍼스 안에 있다. 기원 후 2~4세기에 걸쳐 조성되었다. 고분군 인근 마한 시대 생활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패총지역을 답사하였다. 군산 해안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패총이 분포하는데 발굴 하나 못했다 한다. 관심이 시급하다.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고분군(국가사적 제531호)은 마한고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1호분은 길이 72m, 높이 7m나 된다. 이곳에서는 금동제 신발과 중국 청자, 일본 토기 등 유물이 출토되어 5세기를 전후한 이곳의 국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군산대 교내)



고창 봉덕리 고분

[5월 답사] 5월 21일, 후백제 왕궁, 왕릉, 사찰, 피난성을 찾아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이었다. 지금 전주는 조선왕조만 붙들고 사는 셈이지만, 전주의 꿈과 숨결은 후백제에 깃들여 있다. 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이유로 철저히 잊밧힌 그 역사가 몇 걸음만 나가면 바로 우리 곁에 있었다. 답사는 후백제 성곽 유적이 나온 자리인 전주 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구 전주영상문화진흥원)에서 시작하였다.

답사 길은 전주 시내 [후백제 왕궁 터(인봉리) - 왕릉 터 - 사찰 터 - 피란 성(동고산성)]으로 잡았다. 모두 아직은 대체로 추정되는 곳들이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왕궁 추정 터, 왕릉 추정 터, 사찰 추정 터를 둘러본 뒤, 동고산성에 올랐다. 입구 성벽 축조기술부터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후백제의 선진성이 한 눈에 느껴진다.



[6월 답사]

6월 25일, 천년 푸른 빛 진안 청자를 찾아서

뜻밖에도 청자의 고향이 진안이었음을 처음 알았다.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 청자 요지(가마터)[국가사적 제551호, 후백제]를 찾았다.

마을 곳곳 밭두렁이며 담장마다에서 옛 청자 굽던 최첨단 산업단지 마을의 자취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청자 조각과, 청자에게는 갑옷이나 다름없었을 갑발 편과, 벽돌 가마 부스러기들이 마을 어디에나 굴러다녔고, 담장 틈에 끼어 있었다.

호남좌도농악으로 이름 날리던 중평마을로만 알아온 것은 우리 역사의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외한들이 보기에 도자사를 새로 기술해야 할 만큼 특별한 유적 같아 보였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리라.

그래도 아직 방치나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어서 애잔함을 느꼈다. 뛰어난 비색 청자, 상감 청자가 뿌리 없이 나왔을 리 없을 것이고 이곳 진안의 초기 청자가 중요한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7월 답사]

7월 9일,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 현장 답사

7월 답사지로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 현장을 찾았다. 진안도통리 중평마을 청자요지(국가사적 제551호, 후백제)에 이어서 청자의 자취를 더듬어 고창을 찾았다. 고창 도요지는 후백제의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에서 최고 품질의 청자를 생산한 부안 고려청자 도요지로 이어지는 전단계 지역으로 추측한다고 한다.

반암리 발굴조사 현장에 도착하니 사진으로만 보았던 생생한 발굴 모습이 나타났다. 현장 주변에는 도자기 파편과 갑발(도자기를 구울 때 담는 큰 그릇)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발굴조사 중인 연구원들이 직접 조사 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현장 안내를 해주었다.

반암리 청자요지는 전축요(벽돌가마, 중국식)에서 토축요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전축요 1기, 토축요 4기, 건물지 2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1호 토축요는 약 40m로 규모가 웅장했다. “반암리 청자요지는 우리나라 초기청자 생산의 중심지로서 청자의 도입과 전개과정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관리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더위에 발굴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땀 흘리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감동이었다.

답사를 다닐수록 전북의 고대사는 매력적이다.

(참고: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정비사업부지내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시대의 경계에 서서 아이유가 불러주는 ‘개여울’을 듣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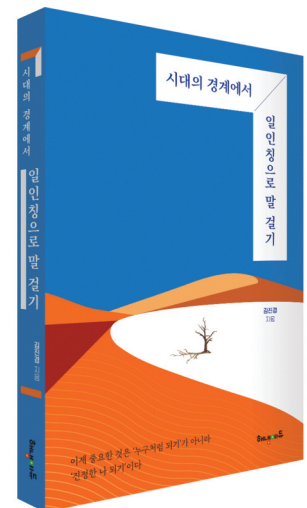
김영춘 (시인, 본원 자문위원)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 벗이어 어서 오게나 고통만이 아름다운 밤에
지금은 우리가 상처로 서로를 확인하는 때 / 지금은 흐르는 피로 하나 되는 때
벗이어 어서 오게나 움푹 패인 수갑 자욱 그대로 / 벗이어 어서 오게나 고통에 패인 주름살 그대로
우리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 / 오직 서로의 상처에 입 맞추느니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 그것이 이 어둠 건너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김진경 시/ 윤민석 곡)

벌써 40여년이 지났으니 이 노래마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적어 보았습니다.

85년 ‘민중교육지’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쉬지 않고 이 땅의 교육운동을 일궈왔던 교육운동가 김진경 시인이 국가교육회의 일을 마치고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하필 참으로 아프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골라서 오십니다. 이번에는 칠순의 허연 머리카락으로 오셔서 가지고 그 마음이 더 애뜻합니다. 그러나 애뜻하다거나 아프다거나 절망스럽다거나 하는 이런 표현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정도의 사람이 갖는 감정이지 어디 선생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김진경 시인은 아픔이나 절망하고는 무관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리가 없을 거라는 말일 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급히 새로 쓰신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구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새벽녘에 책을 덮을 때까지 단숨에 읽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만나고 귀 기울여 말씀을 들어온 40여년이 역사가 되더니 한 조각 한 조각 빛나면서 저의 눈앞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아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실제로 몸부림쳤던 현실로, 어떤 때는 문화인류학이나 신화적 해석으로, 어떤 때는 시와 노래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더군요.

김진경 시인이 원래 좀 그러시잖아요? 어눌하게 몇 마디를 건네고는 눈만 껌벅껌벅 하시다가 어느 결엔가 가고 없으시죠. 한 덩어리의 밥이 담긴 사유의 그릇을 남긴 채로.

이번 책에는 정미조가 부른 ‘개여울’과 아이유가 부른 ‘개여울’을 나란히 놓고 이런 저런 느낌을 풀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읽다가 아이쿠!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대의 경계에서 일인칭으로 말 걸기’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우리와 아이들의 삶은 왜 그런 모습이었는지, 왜 우리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떠나가야 하는 것인지, 조각조각으로 부서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형상을 갖추어서 내게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인간의 근원과 아이들의 삶을 움켜쥔 채 살아온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책을 덮고 났더니 윤석열이 같은 종류의 사람들로 인한 두통마저도 훨씬 덜해졌다는 소식도 전해봅니다.

▶ 5.18 및 이세종 열사 관련 연대 활동 활발히 펼쳐

우리 문화원은 지난해 5.18 기념식 즈음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활발한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5.18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기록화 사업과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에 정우식 이사장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했다.

본원이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한 5.18 기념식과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는 정우식 이사장, 남상팔 원장, 이미영 대표, 정은숙, 문채병 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 5.18 및 이세종 열사 관련 정우식 이사장 인터뷰 /전주 KBS 뉴스 화면캡처

▶ 전북 마을교육 활성화 정책토론회 참석

본원 송병주 고문, 정우식 이사장, 이미영 지역교육연구소 대표, 송승용, 신성하 교장 등은 지난 5월 16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2022 전라북도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마을교육공동체 토론회 모임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공동대표 송병주, 이미영)는 지난 5.20, 6시30분, 본원 교육실에서 '전북마을교육공동체 현황과 대안'(송승용 정읍서신초 교장), '전북자치단체 정책 제안'(정우식 이사장), '타시도 교육청-지자체 협력 사례'(이미영 대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다.

▶ 이미영 대표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

본원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이미영 대표는 지난 6월,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전북교육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도자의 필수 덕목 不動心

문채병(본원 이사)

공손추는 맹자에게 “선생님은 높은 지위를 얻어 패업(霸業)이나 왕업(王業)을 이루게 된다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책임이 막중한 지도자 위치에서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의문을 품고 헛갈리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겠냐는 물음이다. 이에 맹자는 나이 사십에 이미 不動心했다고 자처한다. 다시 “부동심에는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있다.”라고 대답한다. 이어서 不動心은 말을 알아차리는 지언(知言)과 기(氣)를 기르는 養氣공부인 호연지기(浩然之氣)로 갖추어진다고 제시한다.

知言. 세상에 난무하는 편파적인 말, 방탕한 말, 정도에 맞지 않는 말, 둘러대는 말 등을 알아차려 그 말속에 있는 생각의 진위, 선악, 시비를 알 수 있으면(知言) 의혹이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동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知言은 지혜(知慧)이며 지혜롭기 때문에 不動心으로 귀결된다.

또 浩然之氣라는 氣에 대하여서는 말로써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難言也). 不立文字와 격을 같이 한다. 浩然이란 물이 성대한 모습, 넓고 웅대한 모습을 말한다. 浩然之氣는 우리 몸은 원래 仁義之性이 가득 채워진 浩然한 기운이었지만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변질, 줄아진 상태이므로 다시 원래대로 仁義之性의 氣를 가득 채우라는 것이다. 즉, 도덕적 용기(勇氣)로 충만해진 浩然之氣가 不動心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浩然之氣는 어떻게 생기는가?(養氣論) 몸 안에 내재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義와 天理의 초월적 도덕본체인 道로 나아가야 생긴다. 다시 말해서 올바름이 내면에 꾸준히 쌓여서(集義) 생기며 자연스럽게 그 힘이 밖으로 뻗어 나오는 것이다. 氣는 본래 움직이면서 축적되지 않는 생동적인 것이다. 내 몸에 충만한 기는 의지로 작용하여 성대하게 흐른다.

知言공부가 되고 나서야 사악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사상과 신념이 동요되지 않는다. 養氣공부로 호연지기한 도덕적 용기가 갖추어져야 위난을 극복할 수가 있으며, 덕을 세우고 공적을 이루는 책임을 담당할 수 있다. 知言·養氣공부를 통해 도달한 不動心은 바로 근심, 현혹, 두려움이 없으며, 방종, 동요, 굴함이 없는 부동심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생명 속의 뛰어난 才氣와 찬란함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신입 회원을 기다립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전북교육 발전과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의 : 063/905-0218, 010-8626-4935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